

COVID-19 이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병렬다중매개효과

이윤정, 김경아*
해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Parallel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Abilit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since COVID-19

Yoonjeong Lee, Kyeong-Ah Kim*
Professor, Dept. of Nursing,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 130명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수집되었으며, SPSS/WIN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PROCESS macro model 4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지능, 대학생활적응, 자기효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에 총효과($B=0.48$, $p<.001$)가 유의하였고, 정서지능($B=0.20$, 95% bootstrap CI=0.06~0.36)과 자기효능($B=0.17$, 95% bootstrap CI=0.05~0.31)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에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 정서지능, 자기효능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 of interpersonal abil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nd the parallel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30 nursing students at a college. Data were collected from 24 July to 1 August 2023,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PROCESS macro model 4 using SPSS/WIN 27.0. As a result of the study, interpersonal 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intelligence, college life adjustment and self-efficacy. Interpersonal ability had a significant total effect($B=0.48$, $p<.001$) on college life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B=0.20$, 95% bootstrap CI=0.06~0.36) and self-efficacy($B=0.17$, 95% bootstrap CI=0.05~0.31) was also significan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nd research various training programs that can enhanc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together in developing programs to help nursing students improve their college life adjustment.

Key Words : Nursing student, Interpersonal ability, College life adjustment,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Kyeong-Ah Kim(kka-book@hanmail.net)

Received August 14, 2023

Accepted October 20, 2023

Revised August 29, 2023

Published October 28,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적응이란 개인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더욱 발전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고 달성해 나아가는 과정이다[1]. Baker와 Siryk은 대학생들이 대학 내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요구되는 학업·환경 측면과 더불어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과 같이 다양한 부분에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을 대학생활적응이라고 정의하였다[2]. 이는 대학생 개인이 능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대학이라는 주어진 환경과 관계 속 다양한 변화 상황에 성공적 대처를 하고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3]. 대학생은 새로운 대학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전문적 역량을 키워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4]. 이 시기에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지 못한다면, 학업 저하와 사회적 관계, 정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대학교 졸업 후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경제적인 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은 중요한 과제이다[4,5].

한편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6], COVID-19 이전에 조사된 연구와 비교하여 대학생활적응에 곤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7].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COVID-19 스트레스[8]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 교육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수업환경 변화[4] 요인,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요인인 대인관계능력[9], 정서적 요인으로 정서지능[8]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타인과 협력하고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처럼, 간호대학생들도 3년 이상의 비대면 수업과 비대면의 일상이 계속되면서 타인의 정서를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타인과의 대인관계[10]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신체적 및 심리적 돌봄을 실천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도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측되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능력이란 인간의 마음, 느낌,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상호 협력하여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11].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대인

관계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화롭게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동료 또는 대상자와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뢰를 기반으로 치료적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2].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은 간호대학생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본으로 타인의 감정을 바르게 인지할 때 다양한 관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이 조성되고[13], 간호대학생의 원활한 대인관계능력은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이었다[9].

정서지능이란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정서를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으로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4]. 정서지능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자기 자신과 타인 간의 관계에서 정서를 잘 다룰 수 있다[15]. 이러한 정서지능은 대학생들에게 대학이라는 환경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하고, 학업 활동에 도움을 주며, 안정적으로 대학생활을 적응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16].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포괄하여 대학교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바람직하게 처리하고 대처하도록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서지능이 보고되며[8,17],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자기효능은 '나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인지이므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18]. COVID-19 상황의 간호대학생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직업에 대한 믿음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20].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다[21]. 선행연구들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가 바람직하고 원만한수록 자기효능도 향상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파악할 수 있었다[18].

교내와 교외의 실습이 필수적인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에서 COVID-19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현 상황 속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인관계능력이 관련이 있고,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은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COVID-19 이후 간호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역할을 검증한 연구의 수행은 현재까지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과 정서지능, 자기효능의 정도와 연구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 자기효능,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 자기효능,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Fig. 1).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 지역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고 자발적 의사로 참여한 대상자 수는 총 130명이었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회귀분석 검정을 위하여 유의수준(α)은 .05, 검정력($1-\beta$)은 .95, 효과크기(effect size)는 .15, 예측변수 3개를 투입하였을 때 최소 표본의 수는 119명으로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충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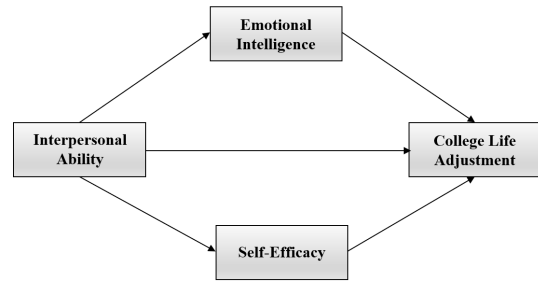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3 연구 도구

2.3.1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Schlein, Guerney와 Stover [22]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Moon [23]이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Moon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2.3.2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Wong과 Law [14]가 개발한 Emotional Intelligence Scale을 Jung [24]가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문항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ung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iryk [25]가 개발한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Park [26]이 번역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역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3.4 자기효능

자기효능은 Chen, Gully와 Eden [27]이 개발한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을 Oh [28]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8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Oh [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는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업과 성적 평가가 종료된 시점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기준을 준수하였다. 연구목적과 방법, 익명성과 비밀보장,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고,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경우에만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부호화하여 입력하고 익명성과 기밀성이 보장되었으며 연구종료 이후 파일을 삭제함을 설명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 자기효능 및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통해 Cronbach's α 값으로 도구의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 자기효능,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병렬다중매개효과는 Hayes [29]의 PROCESS macro for SPSS V.4.2의 모델 4번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10,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95% BC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으로 검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학생 13.1%, 여학생 86.9%로 여학생이 많았으며, 연령은 24세 이상이 54.6%, 20세 이하가 24.6%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무교가 63.1%, 지원동기는 적성과 흥미 37.7%로 가장 많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 경우가 71.5%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25.4%, 불만족은 3.1%이었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건강이 58.5%, 보통이 32.3%, 불건강이 9.2%의 순이었다(Table 1).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7	13.1
	Female	113	86.9
Age (yr)	≤ 20	32	24.6
	21~23	27	20.8
	≥24	71	54.6
Religion	Christian	27	20.7
	Buddhism	14	10.8
	Catholic	7	5.4
	None	82	63.1
Reason for application	Considering grades	1	0.8
	Through aptitude & interest	49	37.7
	Recommendation of parents or teachers	15	11.5
	High employment rate	20	15.4
	Because of professional	37	28.5
Satisfaction with major	Other	8	6.1
	Satisfied	93	71.5
	Moderate	33	25.4
	Dissatisfied	4	3.1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76
Moderate		42	32.3
Unhealthy		12	9.2

3.2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 자기효능과 대학생활적응의 정도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4 ± 0.52 점, 정서지능은 7점 만점에 평균 5.11 ± 0.80 점, 자기효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58 ± 0.63 점,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3.37 ± 0.52 점이었다(Table 2).

3.3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 자기효능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변수인 대인관계능력, 정서지능, 자기효능, 대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Variables	M±SD	Skewness	Kurtosis	Interpersonal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College life adjustment
Interpersonal ability	3.64±0.52	0.12	0.21	1			
Emotional intelligence	5.11±0.80	0.01	-0.11	.73(<.001)	1		
Self-efficacy	3.58±0.63	-0.15	0.30	.60(<.001)	.68(<.001)	1	
College life adjustment	3.37±0.52	-0.30	-0.01	.48(<.001)	.54(<.001)	.53(<.001)	1

학생생활적응의 왜도 절대값은 2 이내(-0.30~0.12)이며 첨도 절대값은 7 이내(-0.01~0.30)이므로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하였고,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80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지능($r=.73, p<.001$), 자기효능($r=.60, p<.001$), 대학생활적응($r=.4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서지능은 자기효능($r=.68, p<.001$), 대학생활적응($r=.54,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효능은 대학생활적응($r=.5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병렬다중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병렬다중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for SPSS V.4.2의 모델 4번을 적용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Table 3 및 Table 4와 같았다.

먼저,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매개변수를 통해 미치는 간접효과를 합한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48, p<.001$). 정서지능과 자기효능 매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11, p=.297$).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검정을 위해서 10,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정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95%의 신뢰구간으로 검증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이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을 통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 유의성은 95%의 신뢰구간에 의해 검증한 결과,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37, 95\% \text{ bootstrap CI}=0.21\sim0.53$). 대인관계능력이 매개변수인 정서지능($B=0.20, 95\% \text{ bootstrap CI}=0.06\sim0.36$), 자기효능($B=0.17, 95\% \text{ bootstrap CI}=0.05\sim0.31$)을 통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간접효과 간의 차이 비교를 분석한 결과에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0.03, 95\% \text{ bootstrap CI}=-0.20\sim0.17$). 위 연구 결과에서,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Table 3. Outcome of total and direct effect on college life adjustment

Variables	B	S.E.	t (p)	95% CI	
				Lower	Upper
Total effect	0.48	0.08	6.17 (<.001)	0.32	0.63
Interpersonal ability → College life adjustment	0.11	0.11	1.05 (.297)	-0.10	0.32
Interpersonal ability → Emotional intelligence	1.12	0.09	12.06 (<.001)	0.94	1.30
Interpersonal ability → Self-efficacy	0.72	0.09	8.54 (<.001)	0.56	0.89
Emotional intelligence → College life adjustment	0.18	0.08	2.33 (.021)	0.03	0.33
Self-efficacy → College life adjustment	0.23	0.08	2.78 (.006)	0.07	0.40
$R^2=.23, F=38.07, p<.001$					

CI=Confidence interval; S.E.=Standard error.

Table 4. Outcome of indirect effect on college life adjustment

Variables	B	Boot S.E.	95% CI	
			Boot Lower	Boot Upper
Total indirect effect	0.37	0.08	0.21	0.53
Interpersonal ability → Emotional intelligence → College life adjustment	0.20	0.08	0.06	0.36
Interpersonal ability → Self-efficacy → College life adjustment	0.17	0.07	0.05	0.31
Indirect effect contrast (Emotional intelligence - Self-efficacy)	0.03	0.12	-0.20	0.27

CI=Confidence interval; S.E.=Standard error.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병렬다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을 증진한다면 대학생활적응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중재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에 따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나타났다. COVID-19 팬데믹 상황 전에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된 5점 척도로 환산한 3.40점[17]과 비교할 때, 본 연구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OVID-19로 인하여 변화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대학생의 적응을 지원하고, 앞으로 다가올 사회진출을 위해 대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은 대학생활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이 대학 내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바람직하게 적응하도록 정서지능과 자기효능 모두를 함양할 수 있는 적절한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3.64점으로 COVID-19 상황 전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im과 Bang [13]의 3.70점과 비교하여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 정서지능, 자기효능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에 총효과와 간접효과로 영향을 미치고, 정서지능, 자기효능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지능과 자기효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적응에 긍정

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9]와 대인관계능력과 정서지능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10], 자기효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18]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동료나 대상자의 감정을 조화롭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문제 상황을 대처하며, 개방적인 태도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대인관계능력[12]은 대학생활적응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활한 대인관계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자기 자신과 타인 간의 관계에서 정서를 잘 다룰 수 있는 정서지능[15]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지능을 중심으로 한 대인관계 훈련 프로그램[30], 의사소통 훈련[31]을 통해 증진되는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교 내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등 대인관계능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별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약한 요인별로 해당 대학생들에게 적용한다면 그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은 7점 만점에 평균 5.11점으로, COVID-19 이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5.09점[10]과 비슷한 수준의 정서지능을 나타냈다. 정서지능은 대학생활적응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서지능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8,16,17]와 일치하였다. 정서지능이 높은 대학생은 정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키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학교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된다[32]. 그러므로 높은 정서지능은 간호대학생에게 대학교 생활에서 학업, 대인관계, 정서 측면에서 요구되는 적응적 정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서지능은 선행연구에서 코칭 프로그램[33], 향상 프로그램[34],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31]과 같은 훈련 프로그램과 자기계발 전략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정서지능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활적응에서 도움이 필요한 간호대학생들에게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하며 활용할 수 있는 정서지능 향상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58점으로, COVID-19 이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3.43

점[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은 대학생활적응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이는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19]와 유사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효능에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자기효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즉,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하기 위해 대인관계능력을 고려함에 동시에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을 향상할 수 있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인관계 지지와 회복프로그램 및 정서·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등의 중재 전략개발과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대학 생활에서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하여 정서지능과 자기효능, 대인관계능력의 영향을 확인하고 명확한 관계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대인관계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을 향상할 수 있는 학생 개인별 지원 프로그램을 교내조직 내에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가 한 지역 일개 대학교의 간호대학생들을 편의 모집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간호대학생 전체 집단대상으로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이를 보완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이후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 특히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은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병렬다중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의 정서 능력인 정서지능과 개인의 인지적 판단인 자기효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생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더불어 학교 차원에서 정서지능, 자기효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원을 마련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과 대학의 적절한 비교과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대학생 전체의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는 부족하여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해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된 정서지능과 자기효능을 높일 수 있는 이해, 활용 및 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M. Barker, C. Child, C. Gallois, E. Jones & V. J. Callan. (1991). Difficulties of overseas students in social and academic situation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3(2), 79-84. DOI : 10.1080/00049539108259104
- [2] R. W. Baker & B. Siryk.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DOI : 10.1037/0022-0167.31.2.179
- [3] H. S. Kim, K. A. Cho & I. S. Rho. (2019).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3), 1067-1078. DOI : 10.22143/HSS21.10.3.77
- [4] Y. B. Kwak & Y. H. Kim. (2021).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4), 1905-1916. DOI : 10.22143/HSS21.12.4.135
- [5] H. Y. Lee. (2008). Parenting behavior and adjustment to college: Moderating effect of cultural dispositions.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14(3), 337-355. DOI : 10.17949/jneac.1.14.200803.015
- [6] J. H. Sung. (2020). Influences of gender equality, vocational identity, and global interpersonal

-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6), 2443-2456. DOI : jkdas.2020.22.6.2443
- [7] S. H. Hong. (2021). Mediating effects of social iso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20), 301-310. DOI : 10.22251/jlcci.2021.21.20.301
- [8] K. A. Kim. (2023).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abil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in some a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1), 520-530. DOI : 10.5762/KAIS.2023.24.1.520
- [9] S. H. Choi. (2018). Effect of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1), 148-156. DOI : 10.5762/KAIS.2018.19.11.148
- [10] M. Y. Woo, H. J. Bae & S. J. Hong. (2020). The convergenc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on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12), 401-408. DOI : 10.15207/JKCS.2020.11.12.401
- [11] Gardner, H. (199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12] M. O. Chae. (2016).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5), 95-103. DOI : 10.5762/KAIS.2016.17.5.95
- [13] S. S. Sim & M. R. B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34-642. DOI : 10.5762/KAIS.2016.17.12.634
- [14] C. S. Wong & K.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DOI : 10.1016/s1048-9843(02)00099-1
- [15] D. Goleman.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16] W. Q. Tang, X. M. Jiang, M. Q. Zhang & Y. Chang. (2015). The impact mechanism of college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ass network on adaptability: A multilevel mediation model. *Journal of Psychological Science*, 38(3), 618-624.
- [17] K. O. Lee & H. J. Chae.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0), 355-365. DOI : 10.14400/JDC.2016.14.10.355
- [18] S. H. Sok, D. S. Shin & K. B. Kim. (2006).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4), 475-481.
- [19] H. R. An & J. Y. Lee. (2021).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in COVID-19.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3), 34-45. DOI : 10.22156/CS4SMB.2021.11.03.034
- [20] Y. S. Lee, S. H. Park & J. K. Kim. (2014).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college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6), 229-240. DOI : 10.5392/JKCA.2014.14.06.229
- [21] E. K. Byun & Y. J. Kim. (2022).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3), 521-528. DOI : 10.17703/JCCT.2022.8.3.521
- [22] S. Schlein, B. G. Guerney & L. Stover. (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Master's thesi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23] S. M. Moon. (1980).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19(2), 195-204.
- [24] H. W. Jung. (2007).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 University.
- [25] R. W. Baker & B. Siryk. (1989).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In Program of the Seventy-Fourth Annual Meeting.
- [26] E. H. Park. (2014).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Master's thesis. Kyungil University, Gyeongsan.
- [27] G. Chen, MS. Gully & D. Eden.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 [28] I. S. Oh. (2002). General self-efficacy: The concept measurement issues, and implications for HRM.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4(1), 62-83.
- [29] AF. Hayes.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30] H. S. Oh & H. Y. Kim. (2013).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raining program based on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1), 15-22.
DOI : 10.14370/jewnr.2013.19.1.015
- [31] M. J. Yoo. (2018).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nurse's communication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EQ),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abilit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6), 280-290.
DOI : 10.5762/KAIS.2018.19.6.280
- [32] H. K. Kim & S. M. Han. (2011). The effects of health of home environment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Education Studies*, 17(1), 121-161.
DOI : 10.24159/joec.2011.17.1.121
- [33] M. Baek & K. S. Jang. (2016).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n the effectiveness of coaching program for nurse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1(1), 57-66.
DOI : 10.21032/jhis.2016.41.1.57
- [34] O. S. Lee & M. O. Gu. (2014).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6), 682-696.
DOI : 10.4040/jkan.2014.44.6.682

김경아(Kyeong-Ah Kim)

[정회원]



- 1992년 8월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2년 3월~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노인간호학
- E-Mail : kka-book@hanmail.net

이윤정(Yoonjeong Lee)

[정회원]



- 2015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1년 3월~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근로자 건강증진, 삶의 질
- E-Mail : hilde70@naver.com